

의과대학 학생 여러분께 복귀를 요청하는 마지막 말씀

사랑하는 의과대학 학생 여러분,

여러분이 학교로 돌아온다고 했을 때, 모두가 기뻐하고 안도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학교로 돌아오기를 결정한지 어느 덧 한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강의실에는 빈자리가 더 많이 보여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협회(KAMC)는 오직 의대 교육 정상화만을 생각하여, 정부에 2026학년도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고, 정부는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대학과 정부는 여러분의 복귀와 교육을 위해서 결단을 하였고, 여러분이 강의실로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동안 총장과 학장들이 대화하고 소통하였지만, 수업 참여율은 많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오늘은 대학과 정부가 학사일정을 고려해서 정한 복귀할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어제 교육부에서 오늘을 기준으로 유급 대상자를 확정하여 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했습니다. 아직도 복귀를 망설이고 있거나, 5월 이후에도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 오늘이 복귀할 수 있는 마지막 날만큼 돌아오기를 간곡히 호소하며, 다음과 같이 학생 여러분께 안내하고 당부합니다.

1. 많은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고 싶다는 의사를 재확인하였습니다.

- 지난 주말부터 대학별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많은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고 싶어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생들은 6월 이후 새정부가 출범하면 학사 유연화 조치 등을 통해 미복귀자를 구제해줄 것이라는 막연한 루머를 믿고 있습니다.

- 학생 여러분, 이는 확인되지 않고 확인할 수도 없는 헛된 기대입니다.
- 어렵게 용기를 내어 먼저 복귀한 동료들이 강의실에 있습니다. 이제는 같은 강의실에서 함께 의료인으로서의 미래를 준비하기 바랍니다.

2. 오늘 복귀하지 않으면, 올해는 더 이상 학교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 오늘까지 복귀하지 않는다면, 학칙에 따라 유급될 것이며, 유급 대상자를 확정하여 교육부에 제출할 것이며, 25학년도는 복귀한 학생들의 원활한 교육을 위해 학사를 운영할 것입니다.
- 유급이 확정되면, 교육과정을 조정하는 학사 유연화 조치로는 복귀할 수 없고, 유급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 만약, 여러분이 7월 또는 8월에 복귀한다면 이미 1학기 교육과정이 끝난 후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2학기에 별도의 교육과정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 한 학년에서 이미 복귀한 학생과 이후에 복귀한 학생을 위한 두 개의 다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는데, 대학의 교육여건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설령, 정부가 대학에 학사 유연화를 요청하여도 대학의 교육여건상 수용할 수 없습니다.
- 오늘까지 복귀하지 않는다면 올해는 더이상의 복귀는 어렵고, 여러분에게 천금 같이 소중한 1년의 시간을 또 다시 잃어버릴 수 밖에 없습니다.

3. 오늘 24시까지 학교로 확실한 수업 참여 의사를 밝혀주십시오.

-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오늘 24시를 기준으로 유급을 확정할 것입니다.
- 아직 복귀를 망설이고 있다면 용기를 내어 주시길 마지막으로 요청합니다.
- 오늘 24시까지 수업 참여 의사를 학교에 알려주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30일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